

“정치권 ‘전효숙 문제’ 빨리 풀어야” 광주 논술실력 전국 최하위권

서울대 인문계열 분석 16개 市道중 15위...전남은 11위

9월처리 무산...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언제까지 싸울건가” 국민 비난 비등

2006학년도 서울대 지역별 논술 평균

순위	지역	평균점
1	경남	23.56
2	경원	23.53
3	대구	23.5
4	경북	23.49
5	서울	23.48
6	전북	23.47
7	전남	23.46
8	전남	23.45
9	전남	23.42
10	전남	23.41
11	전남	23.40
12	전남	23.39
13	전남	23.38
14	전남	23.37
15	전남	23.36
16	전남	23.35
17	전남	23.34
18	전남	23.33
19	전남	23.32
20	전남	23.31

(자료제공:서울대)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추석을 앞두고 광주시와 광산군 농산물 검시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합동단속반이 25일 광산군 월곡시장 수산물 가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조영황 인권위원장 돌연 사의

“지병으로 업무수행 힘들어”
 조영황(6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인권위 홍보실을 통해 “고혈압 등 지병으로 인해 인권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이상의 이유는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위원들과 종종 의견충돌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X(고속철) 승무원 고용 차별건과 북한주민 구명건 등 사회 이슈가 집중된 갖가지 진정사건이 끊이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에 권고를 내리면 “인권위의 정체가 무엇이나”고 반발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시민단체들이 “인권위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난해 조 위원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인권위 13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최고의결기구)가 시작된 직후 한 위원이 “워크숍 퇴장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물러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최영에 상임위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부탁했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회의실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인권위 내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조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의 내부갈등 및 업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퇴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위원장은 인권위 사무처 운영과 전원위원회 진행에서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제10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부천서 상고문서전 특별검사, 방송광고심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등을 거쳐 작년 4월4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2008년 4월까지이다. /연합뉴스

헌법학자 35명 “국회 표결로 해결하라”

헌법학자 35명 “국회 표결로 해결하라”
 경북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가나다순) 등 24개 주요 대학 헌법학자 35명은 25일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와 관련, “헌법학자 35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 정쟁을 거두고 표결을 통해 헌정과정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소장파 헌법학자들은 “단상점 거 등 비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은 헌정의 현실을 더욱 심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정 정상화가 헌법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국회에 대해 ▲대국민 사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중단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중단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1946년, 지역인재 양성을 사명으로 교육 불모지인 이 땅에 첫발을 내딛던 조선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교육 최우선 정책, 연구중심대학 선정, HK리서치 지명대학선정대학 중 1위, 현재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더 길게 가는 뜻은, 더 노력해가는 뜻을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김우현

혈당 낮추는 ‘양과 쌀’ 무안서 전국 첫 개발

혈당 낮추는 ‘양과 쌀’
 무안서 전국 첫 개발

당뇨환자 혈당 조절용 ‘양과 쌀’이 전국 처음으로 무안에서 개발됐다. 무안군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쌀에 양과와 약재를 첨가, 혈당을 낮추는 기능성 쌀인 ‘절당미인(가나다순)’ 개발에 성공, 26일 오후 2시 무안승달 예술회관에서 용역 보고회와 시식회를 연다.

‘절당미인’은 무안에서 생산된 ‘황토랑 쌀’에 특산물인 양과와 홍삼·구기자·황기를 첨가해 가공한 제조한 기능성 쌀. 한국식품연구원은 생쥐를 상대로 14개월여 걸쳐 실험한 결과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식품연구원 이세은 책임연구원은 “생쥐에 하루 7g의 절당미인을 먹인 결과 혈당치가 309.7mg/dl에서 11% 감소한 277.3mg/dl을 기록했으며 70g을 먹었을 경우 최고 21%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특히출원을 마치고 기능성 쌀 전문생산업체인 (주)하이즈와 공동으로 전국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주)하이즈는 무안쌀만을 사용해 당뇨 조절용 쌀을 가공, 1kg, 3kg, 5kg단위로 판매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당뇨 조절용 쌀 1만톤 등 연간 2만톤의 기능성 쌀 소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kwangju.co.kr

“여순사건 조사 11월초 개시”

“여순사건 조사 11월초 개시”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늦어도 11월 초 시작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송기인 위원장은 25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남지역에서 조사 개시결정이 내려진 ‘함평 11사단 사건’ 등 5건과 피해 규모가 큰 여순사건에 대해 늦어도 11월 초까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집단희생 관련 접수 사건으로 좌익 전향자 조직인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희생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10월 말까지, 뒤이어 지난 1950년 7월 나주경찰서 소속 나주부대가 인민군으로 위장해 해남 등지에서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나주부대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전남지역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모두 1천764건으로 집단희생 사건이 1천608건으로 가장 많고 인권침해 및 학살관련 사건 26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126건, 항일독립운동 사건 4건 등이다.

송기인 위원장은 “대상자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반드시 조사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당뇨환자 혈당 조절용 ‘양과 쌀’이 전국 처음으로 무안에서 개발됐다. 무안군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쌀에 양과와 약재를 첨가, 혈당을 낮추는 기능성 쌀인 ‘절당미인(가나다순)’ 개발에 성공, 26일 오후 2시 무안승달 예술회관에서 용역 보고회와 시식회를 연다.

‘절당미인’은 무안에서 생산된 ‘황토랑 쌀’에 특산물인 양과와 홍삼·구기자·황기를 첨가해 가공한 제조한 기능성 쌀. 한국식품연구원은 생쥐를 상대로 14개월여 걸쳐 실험한 결과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식품연구원 이세은 책임연구원은 “생쥐에 하루 7g의 절당미인을 먹인 결과 혈당치가 309.7mg/dl에서 11% 감소한 277.3mg/dl을 기록했으며 70g을 먹었을 경우 최고 21%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특히출원을 마치고 기능성 쌀 전문생산업체인 (주)하이즈와 공동으로 전국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주)하이즈는 무안쌀만을 사용해 당뇨 조절용 쌀을 가공, 1kg, 3kg, 5kg단위로 판매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당뇨 조절용 쌀 1만톤 등 연간 2만톤의 기능성 쌀 소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kwangju.co.kr

후원학원 동명 56년 역사만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mb.ac.kr
 ▶ 신원동 602(970-0114) ▶ 1,002(970-5000~4)

세계로 뻗어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s.ac.kr
 ▶ 신원동 601(984-2551) ▶ 1,001(984-5000)

일본근속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온도형 27명9만원 (10/9.18.24일 3박4일)
 ▶ 호평형 30명9만원 (10/11.22일 2박3일)
 광주일보사 (062)220-0541